

## 김정은·트럼프 ‘세기의 빅딜’... 한반도 평화 운명의 날

오전 10시 싱가포르서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시작  
비핵화·평화체제 ... 70년 냉전 종식 세계가 주목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1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의 위대한 청사진을 내놓을 것인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 민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길고 긴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이 열리기를 기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2·8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본격적인 담판에 들어간다. 반북과 대립의 70년 역사를 가진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마주 앉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갈등 구조를 허무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 모두 회담을 목전에 두고서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성 김 필립 대사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수차례의 판문점 실무회담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협의를 지속하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측은 11일 자국 매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를 비핵화 프로세스와 맞추겠다고 북미관계 개선과 체제 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원한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 (CVIG) 조치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CVID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현지시간)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백악관 기

자회견에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히, 이번 회담이 사실상 종전선언 나아가 불가침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대통령 궁인 이스타나궁에서 리셴룽(李显龙) 싱가포르 총리와 오찬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내일 아주 흥미로운 회담을 하게 된다.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문을 여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의 출발을 약속한다면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심지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상황을 보자마자 군축까지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세계가 고대하던 북미정상회담이 내일 개최된다.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북미)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논의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두 정상은 싱가포르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원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 지역 정치 구도 민주당 독주에 ‘새판 짜기’ 이뤄질까 주목

#### 지방선거 D-1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광주·전남지역 정치 지형 변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4·5면>

현재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독주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독주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경우 과거 지역구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으로 이어져왔던 지역 정치구도가 깨지면서 지방 정치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역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등이 총동원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이 지역 조직의 근간인데다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지방의원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광역·기초의원 비례를 선출하는 정당 득표율도 향후 지역 정계 개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정당 후보들이 광역·기초의원 비례로 입성하는 사례가 많아 진보정당이 뿌리를 내렸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바

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민주당 등 야당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어떤 정당이 의미있는 득표율로 비례의원들을 차지할 지 주목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도 주요 관심사다. 광주 서구 갑에서는 민주당 송갑석 후보와 평화당 김명진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김 후보가 승리하면 광주지역 평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5명이 되지만, 송 후보가 승리할 경우 광주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 된다. 이럴 경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바른미래당 3석, 평화당 4석, 민주당 1석으로 변하게 된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는 3번째 (경선 포함) 대결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서삼석 후보와 평화당 이윤석 후보 간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압승을 하게 된다면, 야당 국회의원에 여당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구도도 변하게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 간 대결 구도, 일부에서는 정당 간 협치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알립니다

### 2018 달빛 소나기 ‘광주’

‘달빛동맹’ 광주·대구 청년 문화 교류·소통의 장

광주와 대구 지역 간 상생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2018 달빛 소나기-광주’를 오는 7월 7일(토)~8일(일) 개최합니다.

달빛은 ‘달구벌’로 불리는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상징하고, 소나기는 ‘소통+나눔+기쁨’을 함축한 말입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와 대구 지역 청

년 문화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2018 달빛소나기-광주”가 광주와 대구 지역 간 화합과 발전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가문의 062-220-0541

- ▶일 시 : 2018년 7월 7일(토) ~ 8일(일)
- ▶장 소 : 광주신양파크호텔 외 광주일원
- ▶주요프로그램

7월 7일(토)	제1부 달빛소통	14:00~17:00	광주문화재단 투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제2부 달빛나눔	19:00~22:00	멘토특강 공감콘서트
7월 8일(일)	제3부 달빛기쁨	09:00~15:00	빛고을 문화 투어 (양림문화마을, 환벽당 등)

- ▶주최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 ▶주관 : 아시아문화
- ▶후원 : 광주일보, 영남일보

광주일보

**광주일보**  
광주시교육감·전남도교육감 후보 대표 공약 분석 ▶5면  
제63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작문·미술·일러스트·칸만화 ▶16·17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 우리가 꿈꾸는 내일, 투표로 실현하세요

# 6.13. 아름다운 선거

## 행복한 우리 동네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